

넓고 깊어진 현대미술의 세계

새로운 미술기획 시리즈 선보여...인문학과 미술의 결합 시도

굵직한 미술기획물이 여럿 선보였다. 대개 통사류의 개괄서, 눈으로 즐기는 화집이 고작이었던 미술서에 사계절의 <아트 라이브러리>시리즈와 안그라픽스의 <미술로 보는 신비주의의 세계>시리즈는 인문학과 미술의 결합을 시도해 미술전문서의 깊이와 폭을 더하고 있다.

단순한 감상 넘어 통합학문적 접근

그간 교육과 인문분야의 책을 출판해 온 사계절은 <아트 라이브러리>를 '미술의 언어를 숙련하는 도우미'로 펴낼 계획이다. 기획방향은 미술학도나 미술전공자들에게 학문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 학문관련 서적의 번역과 집필과 전문가의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일반인 대상의 미술안내서, 두 방향으로 잡고 있다.

독일에서 미술사를 공부한 젊은 미술사학자 이현순(서울대 강사)씨와 노성두(서울대 강사)씨를 기획위원으로 한 이 시리즈는 미술에 나타난 인간정신을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작업에 치중한다. 첫권으로 펴낸 <도상학과 도상해석학>은 이러한 기획의도에 충실한 책이다. 에케하르트 케머링 등 세계적 미술사가 11인의 결코 녹록치 않은 논문을 묶었는데, 미술의 언어를 해독하는 '도상학'에 초점을 맞췄다.

미술은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지워지는 상징을 담기 좋은 그릇이다. 도상학은 이 상징을 읽는 문법인데, 미술사의 방법론으로서뿐 아니라 디자인, 사진, 연극, 문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사고와 시대대를 반영한 것으로서 미술품을 읽으려는 노력은 인류의 역사를 읽으려는 노력과 다르지 않다. 미술과 인문학의 접점을 찾는 것도 이 부분에서다. <도상학과...>에 이어준 비 중인 르네상스 미술론의 경전 알베르티의 <회화론>과 미테마의 <미술과 미술사론>도 이런 관심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기획된 책들도 마찬가지. 7월 출간 예정인 조용진 교수(서울교대)의 <서양화 읽는 법>과 올 가을에 나올 이현순·노성두씨의 <명작에로의 초대>는 단순한 미술감상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미술분야를 통합학문적으로 접근한 성과물이 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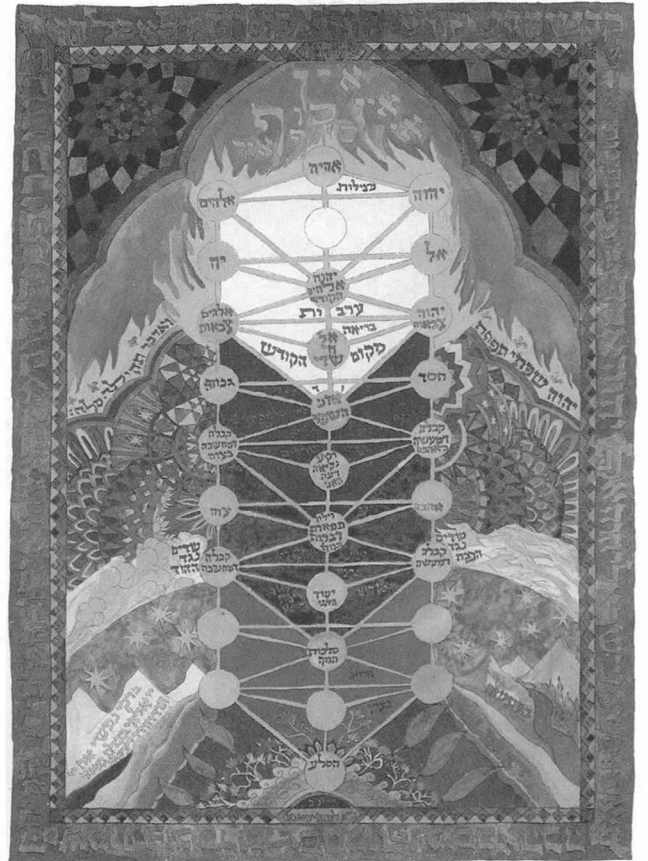
이런 점에서 안그라픽스의 <미술로 보는 신비주의의 세계>는 인문학과 미술이 만나는 본격적인 기획물이다. 이 시리즈는 런던의 템즈 앤 허드슨사(Thames and Hudson)가 펴내는 '아트 앤 이매지네이션(Art and Imagination)'을 번역한 것인데, 그림을 매개로 각각의 인문학적 주제에 접근한다. 현재까지 39권이 나왔고, 주로 다루는 주제는 유대교·불교·도교·힌두교·이슬람교 등 종교와 점성술·마술·무술·무속·신체·저승·생명수·아틀란티스·시간 등 철학·민속·역사다.

안그라픽스는 올해 안에 8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1차분으로 <카발라>, <기하학의 신비>가 먼저 나와 있다. 각각 유대교의 경전과 기하학의 철학적 성격을 탐색한 이 두 책은 주제와 내용면에서 이제까지의 미술사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카발라'는 우리에게 생소한 유대교의 경전이다. 이 책은 카발라의 주요 사상을 표현한 '생명의 나무' 그림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유대교 신앙의 실체를 보여준다. 10개의 원이 지그재그로 배열된 이 '세피로트'는 세계가 10회의 '거룩한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의 상징이며, 다양한 형태의 교리로 변주된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세피로 나무에 투영해 설명되는가 하면, 카발라의 도(道)가 전승되는 계통도가 되기도 한다. 천진난만한 영혼이 경험을 쌓은 정신체로 성장하여 마침내 창조주와 결합하는 '야곱의 사다리' 역시 이 생명의 나무를 변형한 것이다.

'신은 무엇인가? 신은 너비요, 길이요, 높이요, 깊이'는 세인트 버나드의 도발적인 문구가 담긴 <기하학의 신비> 역시 미술의 원리가 된 기하학으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다. 수에 담긴 상징적 의미가 인위적인 세계뿐 아니라 자연까지 지배하고 있음을 각종 수식과 도형의 분해를 통해 보여준다. 나뭇잎들은 5회전에 3잎, 8회전에 5잎의 배열로 피어나는 급수의 지배를 받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주된 방식은 $2(\sqrt{5})$ 에 의한 기하적 수열을 갖고 있다. 인간의 신체와 악기가 기하학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비한 기하학'을 통해 독자들은 고대 철학자처럼 창조자에게 접근해

이제까지 미술서들이 대부분 통사류의 개괄서나 화집 중심이었다면 최초의 굵직한 기획시리즈로 선보인 책들은 인문학과 미술의 결합을 시도해 깊이를 더하고 있다. 그림은 유대교 경전 <카발라>의 핵심교리를 설명한 '생명의 나무'.



갈 수 있다.

올해 안에 <샤만, 영적 치료사들>, <인체, 실재와 그림자>, <아틀란티스, 사라진 대륙 고대의 지혜>, <이집트 문명의 수수께끼>, <수피, 이슬람 수피즘의 세계>, <사자의 서, 사후 세계를 인도하는 책들> 등이 출간될 예정이다.

현대미술,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

기획물과 함께 현대 미술에 본격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을 시도한 단행본이 미술서가에 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외국에서 미술을 공부한 국내 필진의 저작과 현대 미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한 번역서가 대부분인데, 이 뒤에는 대중문화와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대미술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자리잡고 있다.

<폴록과 친구들>(미술문화)은 폴록을 중심으로 한 월렛 드 쿠닝, 프란츠 클라인, 바넷 뉴먼, 아실 고키 등 뉴욕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통해 현대 추상미술의 일단을 보여준다. 저자는 뉴욕에서 공부하고 현장비평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광우씨인데, 제스퍼 존스, 라우센버그, 존 케이지, 요셉 보이스, 바스키아 등의 '뉴욕파' 2세대의 이야기인 <워홀과 친구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없는 미술관>(열화당)은 독일을 중

심으로 활동하다가 얼마전 국내에서 개인전을 갖기도 한 조각가 안규철씨가 썼다. 이 책은 8년 동안의 유학경험을 담은 현대 미술의 현장 보고서라할 만 하다. 유학기간 동안 관람하거나 참여했던 열개의 기획전과 다섯개의 개인전을 통해 현대 미술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현대 미술에 대한 절망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현대미술의 본질을 "부조리의 논리와 추의 미학, 그리고 비도적적 윤리의 옹호"로 파악한 에프리암 키손의 <피카소의 달콤한 복수>(디자인하우스)·현실문화연구에서 펴낸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메리 앤 스타니제프스키), 등의 번역서는 현대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책이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는 선입견을 뒤집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미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파생된 것'이라고 정의하는 근대적 개념의 미술에 반기를 든다. 저자는 라스코 동굴벽화,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미술이 아니'라면서 미술을 비롯한 예술은 인간과 투명하고 자율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디 셔먼의 사진과 마르셀 뒤샹의 '변기'를 미술이라고 일컫는 이 책은 미술을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로 나누는 근대적 이분법에 대한 문제제기도 읽을 수 있다. — 이현주 기자